성결대 '스쿠아', 대한민국 캐릭터 어워즈 대상 수상

교육철학 담은 캐릭터 경쟁력 인정… 소통 · 홍보의 새로운 가능성 확인

성결대학교(총장 정희석 장로)의 공식 마스코트 '스쿠아(SKUAH)'가 제2회 '2026 대한민국 캐릭터 어워즈'에서 산업 분야 대표 캐릭터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대학의 브랜드 가치를 높였다.

디지틀조선일보가 주최한 이번 어워즈는 캐릭터 본조사와 전문가 심사를 종합해 우수 캐릭터를 선정하는 행사로, 시상식은 지난 10월 2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지난 4월 공식 공개된 스쿠아는 캠퍼스의 빛을 모티브로 학생들의 성장과 무한한 가능성을 응원하는 성결대학교의 교육철학을 담고 있다. 이름은 대학의 영문 이니셜 'SKU'에 최상의 성취를 의미하는 'A++', 거룩함과 희망, 생명의 호흡을 상징하는 'H'를 결합해 만들었다.

스쿠아는 친근한 외형과 상징성을 바탕으로 대학 구성원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소통의 매개체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캐나다 코퀴틀람에서 열린 한인 행사에 참가해 첫 해외 공식 활동을 펼치며 대학 홍보의 영역을 국제무대로 확대했다.



성결대학교는 이번 수상을 기념해 교내에서 별도의 상장 · 상패 전달식을 갖고 수상의 의미를 되새겼다. 정희석 총장은 스쿠아에게 상장과 상패를 전달하며 수상을 축하했다.

이번 대상 수상은 단순한 대학 홍보 캐릭터를 넘어 성결대학교의 교육철학과 정체성을 담은 콘텐츠가 대외적으로 경쟁력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성결대학교는 앞으로 스쿠아를 GMBC(Global Meta Bridge Campus) 등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해 활용하고, 대학의 교육적 가치와 비전을 국내외에 알리는 소통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캠퍼스에 울려 퍼진 찬양과 기도… 예배의 불 밝혀

신학대학, 'All Day Worship 다윗의 장막' 나흘간 진행

성결대학교 신학대학(학장 오현철 교수)이 지난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All Day Worship 다윗의 장막'을 개최하고, 캠퍼스 전역에 예배와 기도의 열기를 이어갔다.

'시작과 마무리를 하나님께, 성결대학교를 하나님께'라는 의미를 담아 마련된 이번 행사는 하루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신학대학 학생뿐 아니라 성결대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예배의 문을 개방해 의미를 더했다.

예배는 기념관 6층 모임기도실에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어졌다. 정해진 인도자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누구나 자발적으로 찬양과 기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됐으며, 학생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의 시간을 이어갔다.

행사 첫날인 26일부터 28일까지는 개인 및 소그룹 중심의 릴레이 예배를 비롯해 골방기도회, 북한 기도모임, 사회복지학과 기도모임 등이 진행됐다. 마지막 날인 29일에는 영어영문학과 기도모임과 신학대학 채플이 이어졌으며, 오후 6시 30분에는 4층 대회의실에서 'Destiny 오픈워십'이 열려 예배의 의미를 더했다.



이와 함께 캠퍼스 찬양과 계단기도회도 진행돼 강의실과 예배당을 넘어 캠퍼스 곳곳에서 찬양과 기도가 이어지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재학생뿐 아니라 선후배와 동문,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소속 목회자들도 기도로 동참하며 성결대학교와 신학대학의 영적 회복과 부흥을 위해 뜻을 모았다.

이번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을 학교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배가 특정한 시간이나 장소에 머무르지 않고 캠퍼스의 일상 속에 자리 잡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또한 학생들이 신앙의 본질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과 사명을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됐다.

성결대학교 신학대학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캠퍼스 안에 자발적인 예배와 기도 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신학대학을 중심으로 시작된 예배 운동이 대학 공동체 전체로 이어져 성결대학교의 신앙적 정체성과 영적 사명을 새롭게 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소망했다.

성결대 · 성결교육진흥원, 교단 교육과 미래인재 양성에 맞손

성결신학 · 다음세대 교육부터 AI · 디지털 · 장학사업까지 협력 확대



성결대학교(총장 정희석 장로)와 총회 성결교육진흥원(원장 노윤식 목사)이 교단 교육의 발전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양 기관은 11월 2일 오전 10시 30분 성결대학교 대학본부 8층 총장실에서 교육 및 장학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교단과 지역사회의 교육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예수교대한성결교회의 성결 정신을 바탕으로 양 기관의 교육자원과 전문성을 연계하고, 교단 교육 역량 강화와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협력 분야는 △성결신학 및 성결교회 역사교육 △목회자 · 평신도 지도자 교육 △교회학교 및 다음세대 교육 △평생교육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정부지원 교육사업 참여 △커피 · 디지털 · AI · 드론 등 미래교육 △문화 · 돌봄 · 상담 관련 교육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등이다.

특히 양 기관은 성결신학과 교단 역사교육을 통해 성결교회의 정체성과 신앙적 가치를 계승하고,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의 역량 강화는 물론 교회학교와 다음세대 교육 활성화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 드론 등 미래교육 분야로 협력 범위를 넓히고, 평생교육과 직업능력개발훈련, 문화 · 돌봄 · 상담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드림 커뮤니티 센터' 개소

다문화 친화적 캠퍼스 조성… 재학생 유학생 매칭 프로그램 운영



성결대학교(총장 정희석 장로)가 외국인 유학생의 안정적인 대학생활을 지원하고 내 · 외국인 학생 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새로운 소통 공간을 마련했다.

성결대학교는 지난 10월 29일 교내 학술정보관 2층 컨퍼런스홀에서 '드림 커뮤니티 센터(Dream Community Center · DCC)'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희석 총장을 비롯한 주요 교무위원과 안양시의회 황원영 의원, 사단법인 꿈을이루는재단 이규 이사장과 김상민 대표 등이 참석했다.

성결대학교 기숙사 C동 102호에 조성된 DCC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생활과 학업 적응을 돕고 내국인 학생들과의 문화적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공간이다. 유학생들의 정서적 쉼터이자 다양한 문화 교류 프로그램의 거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현재 성결대학교에는 언어교육원 435명, 대학원 663명, 학부 81명, 교환학생 20명 등 약 1,200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재학 중이다. 대학 측은 이번 센터 개소를 계기로 유학생들의 언어 · 문화적 장벽을 낮추고 학생 간 교류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내국인 재학생인 '드림파트너'와 외국인 유학생인 '드리머'를 일대일 또는 일대다로 연결하는 매칭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참여 학생들은 정기적인 만남과 언어 교환, 문화 탐방 등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대학생활에 필요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게 된다.

이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한편, 내국인 학생들의 국제적 소통 역량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정희석 총장은 축사에서 "DCC는 국적을 불문하고 성결대학교라는 이름 아래 모두가 하나 되는 화합의 상징적인 공간"이라며 "이곳에서 이어질 학생들의 따뜻한 교류와 소통이 낯선 타지 생활을 이겨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성결대학교는 앞으로 DCC를 중심으로 유학생 지원과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국적과 문화의 차이를 넘어 학생들이 서로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다문화 친화적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해외기업체 CEO 초청 강연회 및 기업설명회

성결대학교는 오는 11월 24일(화) 오후 4시 학술정보관 6층 아펍국제회의실에서 '해외기업체 CEO 초청강연회 및 기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글로벌 기업 현직 CEO와의 만남을 통해 학생들에게 해외 기업과 항공 · 관광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글로벌 진로와 취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총 2부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일본상공회의소 서울재팬클럽(SJC) 멤버십 수여식이 진행되며, 2부에서는 일본항공(JAL) Kadowaki Toshimitsu(門脇俊光) 지사장이 초청 연사로 나서 특강을 진행한다.

